

2020년 제2차 이사회 열려 연회비 장기 미납회원들 별도 관리

금년도 제2차 이사회가 7월 2일 11시에 사우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21명의 임원 중 16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차인태 사우회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지 않아 걱정인데 다들 건전한 모습을 보니 반갑다. 뭐 하나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런 때일수록 회원들에게 힘을 주고 보탬이 되는 사우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인사말을 했다.

‘상반기 결산보고’, ‘서면에 의한 정기총회 진행’, ‘창립30주년 기념품 쌀 전달’, ‘MBC의 보험정책 변화에 따른 수입 감소 예상’ 등에 관한 상임부회장의 보고에 이어 의안

논의에 들어갔다. 의안은 ‘연회비 장기 미납회원들의 별도 관리에 관한 건’으로, 장기간 연회비를 미납한 회원들과 연락 두절된 회원들이 130여명에 달함에 따라 이날 논의 대상에 올린 것이다. 사무처는 연회비 장기 미납 회원들 문제를 검토해야 할 이유로 ‘재적회원의 실질화’, ‘지출 경비 절약’ 등을 거론했다. 이사회는 논의를 통해 연회비 장기 미납회원들이 회비 납부 등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할 때까지 ‘휴면회원’으로 관리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단, 휴면회원이 미납회비를 완납할 때는 정회원으로 자동복귀한다.

발전 기금을 내주신 분들(5월 15일 이후)

- 이인용(보도) 300만원
- 정홍보(보도) 100만원
- 김재형(관리) 봉현숙(편제) 50만원
- 심상수(편제) 30만원
- 고 진(보도) 30만원
- 조복현(기술) 20만원
- 권재욱(관리) 20만원
- 황우성(관리) 20만원
- 김동수(보도) 20만원
- 김세중(관리) 20만원
- 김종연(편제) 10만원
- 오명균(편제) 10만원
- 정대용(편제) 10만원
- 홍성기(관리) 10만원
- 채규익(관리) 100만원
- 이종민(관리) 726,700원
- 이건세(편제) 50만원
- 류달훈(편제) 30만원
- 박종규(기술) 20만원
- 윤건호(편제) 20만원
- 김경태(편제) 20만원
- 이기호(편제) 20만원
- 유규현(기술) 20만원
- 이시권(편제) 20만원
- 최정일(관리) 10만원
- 강지현(관리) 10만원
- 이완수(대구) 10만원
- 박종완(관리) 10만원



끊임없는 생각이 세계최고를 만듭니다.

www.dalee.co.kr

주요회원 **다리**

본 사/제1공장
경기도 시흥시 군자천로 185번길 78 (정왕동 1258-8) 시화공단 2단지 209
TEL : 031 498 9600 FAX : 031 497 9600
영업본부/기술연구소 TEL : 030 905 7000

해외법인
Ho Chi Minh / DALEE Vietnam Head Office TEL : 84 28 7300 9600
SAV8-16.10 The Sun Avenue No. 28, Mai Chi Tho, An Phu, District 2, HCMC
Fax: +84 28 3636 3503
Hanoi / DALEE Vietnam Branch Office TEL : 84 24 7300 9600
Ba Diem 2 Street, Bac Tan, Ba Diem, Hoc Mon, HCMC / FAX : 842837186413
Vung Tau / DALEE Vietnam Factory TEL : 84 25 4398 9600
Lot 54, D.02 Street, Chau Duc IP, Suoi Nghe, Chau Duc, Ba Ria - Vung Tau

DALEE CORPORATION
Engineering & Manufacturing Group

서면에 의한 2020년도 정기총회 마쳐

당초 2월에 할 예정이었던 2020년도 정기총회는 뜻밖의 코로나 사태로 무기 연기됐다. 그러나 시간이 가도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음에 따라, 사무처는 주무관청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자문을 구했으며 ‘서면에 의한 정기총회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었다. 이에 사무처는 회원들에게

‘2019년도 결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을 담은 편지를 보내 ‘이의가 없으면 우편, 메일 또는 FAX를 통한 동의를 부탁드립니다’고 요청했다.

7월 10일까지 접수된 동의서는 위임장 포함 총 423명으로 ‘재적회원 1/3이상의 출석’에 해당돼 서면에 의한 정기총회는 (정관에 규정한 대로) 원만하게 마무리됐다.

회/원/동/정



강훈신(기술)

8순을 맞아 자서전 <내 마음의 목소리>를 출간했다. 평생을 교육자로 사셨던 부친, 8남매를 키워주신 모친과 아내에 대한 절절한 사랑, MBC와 PBC 애기 등이 진솔하게 담겨있다. 강 회장은 MBC를 퇴직한뒤 평화방송 기술이사를 역임했다.



최노석(보도)

6월 25일 제6대 경향신문 사우회장으로 선임됐다. 최회원은 1974년 문화경향 통합1기 기자로 입사해 파리특파원과 논설위원 등을 역임했다. 신문사 퇴사 후 10년간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상근부회장을 맡았고, 6권의 저서가 있다.

창립 30주년 기념품 쌀, 각 가정으로 배달

해마다 5월에 열렸던 단합대회를, 올해는 ‘창립30주년 기념행사’로 성대하게 치르려던 계획이 코로나19로 인해 무산돼 ‘아쉽고 섭섭했다’는 의견을 많은 회원들이 피력했다. 한편 사우회 창립30주년 기념품으로 차인태 회장이 제안했던 명품 철원 오대쌀(20kg)은 6월 초에 전 회원(연회비 장기 미납회원 제외)들의 가정으로 배달됐다. 사전 인지가 없었던 일부 회원들은 뜻밖의 선물에 기쁨과 감사의 인사

를 사무처에 보내왔다. 이번 작업을 위해 사무처는 철원 현지 농협을 방문해서 품질을 감정하고 가격을 협상해 비용을 최대한 절감했다. 원활한 배달을 위해 회원들의 주소지를 재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사 후 통보를 하지 않은 회원들이 다수 있어 쌀 배송에 약간의 혼란이 있었다. 사무처에서는 앞으로도 회원들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필히 통보해주기를 당부했다.

사우회 가입을 환영합니다



윤병언(관리)

1984년 경영부문 입사. 법무저작권부장, 인사부장, 사업센터 부국장, 감사국장 2019.12.31. 정년퇴직



서태경(보도)

1984년 보도국 영상취재부 입사. 파리특파원. 영상취재부장. 특임국장 2018년~현재 MBC플레이비 이사



김상진(보도)

1985년 보도국 영상취재부 입사. 2017년 부국장 퇴사. 2017년~2018년 MBC C&I 이사

‘쌀’이 ‘살아서’ 왔네요



이종민(관리)

1977년, 나는 그때 일본 NHK가 주관하는 ‘방송관리과정’ 연수를 동경 인근 八王子市에서 받고 있었다.

동남아, 중동, 남미, 아프리카 등 ‘미개발국’ 방송인들에게 시켜주는 연수였는데, 나도 우리 정부가 파견하는 연수생으로 선발된 것이었다. 한 달쯤 연수를 받고 있을 때, 동경지사 이낙용李樂鎔 지사장의 전화가 연수원으로 걸려 왔다. 김창식金昌植(MBC), 정 남鄭男(경향신문) 특파원들과도 가까운 사이여서 주로 내가 지사支社로 전화를 하는 편이었는데....

“이 부장, 축하해! 총무부장 됐어.”

난 그때 인사부장이었는데 해외 연수 중인 나를 뵈 때문에 총무부장으로 전보발령 했는지 어리둥절했다. 총무 일을 하려면 약삭빠르고, 부지런하고, 다소곳하고 뭐 좀

그래야 하는데 나에겐 그런 구석이 한 군데도 없었다. 더구나 경향신문과 합병되어 있던 때였다.

일본에서 연수를 마치고 귀사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어느 날, 사장실에 다녀온 김동운金東潤 총무국장이 ‘사장실로 가보라’고 했다. 총무 일이란 게 잘해야 본전인지라 ‘또 뭘 야단치려고 오라고 하는 것일까’ 가슴 조리며 사장실로 갔다.

이환의李桓儀 사장께서 뜻밖에 “올 해 창사기념품 말인데, 직원들이나 가족들 마음에 꼭 닿을만한 거 뭐 없겠어? 그동안 준 비누 세트나, 커피 잔, 담요 같은 것 말고....” 하시기에

“있습니다” 했다.

“뭘데?”

“쌀하고 연탄입니다.”

MBC 창사 기념일이 추울 때라 문득 ‘쌀과 연탄’이 떠올랐다. ‘김장, 쌀, 연탄’만 집에 들여 놓으면 월동준비가 되던 때였다. 누구나 찬밥 더운밥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가정형편들이 그리 넉넉지 않

았던 때였다.

“연탄은 좀 그렇고, 쌀 한번 검토 해보게나.”

사장실을 나와 단숨에 그리 멀지 않은 농협중앙회로 달려갔다. 농협에서는 대 환영이었다. 당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는 안성安城쌀을 추천해 줬고, 쌀은 시내 각 지역에 있는 농협지사에서 찾아가도록 했다. 맨날 통일벼 쌀밥만 먹다가 ‘아끼바리’ 쌀로 밥을 지어먹으니 기름이 잘잘 흐르는 밥은 입안에서 녹았다.

창사 기념품 ‘쌀’에 대한 평가가 좋았고 타 언론사에서도 문의가 많이 왔었다. 그러던 창사기념품 ‘쌀’이 회사재정 형편이 어려워지자 오지 않게 됐다. 그동안 쌀이 오면 아들 딸 사돈네 하고도 나누어 먹어 “MBC는 참 좋은 회사”란 소리를 들을 수 있었는데, 그야말로 ‘쌀’ 덕분에 ‘살맛’ 났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때, MBC 사우회에서 ‘쌀’을 보내왔다. ‘쌀’



이 아니라 ‘살’이었다. ‘쌀’이 다시 ‘살아서’ 왔던 것이다. ‘고마워서 어떻게 답례하나’ 생각 끝에 매달 나오는 국민연금 한달 치(726,700원)를 사우회 발전기금으로 보내기로 했다. 그러지 않고서는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질 않을 것 같아서다.

“감사하는 마음은 가장 위대한 미덕일 뿐 아니라 다른 모든 미덕의 근원이 된다.”

로마 정치가 키케로가 한 말이다.

경조사항

구순: 이환의(특별) 9.16 강영숙(ANN) 9.20
팔순: 강홍신(기술) 8.1 김대수(전주) 8.14 김철순(업무) 9.3
김관영(편제) 9.6 하민웅(관리) 9.6 김재현(전주) 9.15
윤여증(편제) 9.15 하영현(관리) 9.15
고희: 배귀섭(보도) 8.3 엄기영(보도) 8.5 김병훈(편제) 9.1
정경석(관리) 9.19 이양휘(전주) 9.20
회갑: 최성금(관리) 8.5 조태현(편제) 8.8 서복희(관리) 8.9
주병도(편제) 8.9 조상휘(보도) 8.23 김현종(편제) 9.26
진현숙(편제) 9.28
결혼: 봉필호(편제) 아들 결혼 6.20
부음: 곽재석(기술) 모친상 5.24 김영금(관리) 시모상 6.1
강효복(관리) 시모상 6.4 정현자(관리) 모친상 6.3
박노홍(보도) 빙모상 6.4 조태현(편제) 장모상 6.18
김세중(관리) 배우자상 6.19 이광열(편제) 장인상 6.21
차동진(기술) 장모상 6.24 이원형(업무) 모친상 6.26

연회비

5월: 강진택('17-'20) 곽노우('18-'20) 김동진('16-'20) 김승한('18-'20)
김영금('18-'20) 김영수('17-'19) 김영택('16-'20) 김은혜('17-'20)
김일수('16-'20) 김종현('14-'20, 80세 완납) 김철동('12-'20)
김평호('17-'20) 김현철('11-'13, 80세 완납) 나명수('13-'18)
박근학('20-'24, 80세 완납) 박경삼('07-'20) 박영선('14-'20)
배종두('15-'20) 손동용('19, 80세 완납) 안영식('19-'22, 80세 완납)
이기주('20) 연규철('21) 윤풍기('20-'22) 오남열('17, 80세 완납)
오순심('20) 원신애('17-'20) 유흥렬('20) 이기준('18-'20) 이명기('20)
이명숙('11-'20) 이병구('07-'20) 이승재('19-'20) 이연구('19-'20)
이영자('16-'20) 이영호('20) 이유호('18-'20) 이은숙('17-'20)
이종수('18-'20) 정석진('17-'20) 임정봉('18-'19, 80세 완납)
전용학('11-'20) 조은국('20) 정갑표('19) 정승호('20) 정영수('19-'20)
정태성('17-'20) 주규만('17-'20) 주옥연('09-'17 80세 완납)
진두범('18-'20) 최우형('09-'18, 80세 완납) 추성춘('07-'20)
편일평('12-'20) 하영현('18-'20, 80세 완납) 한웅희('20)
허경희('18-'20) 한백수('06-'16, 80세 완납) 홍종선('14-'24)

6월: 김강정('18-'20) 김영일('19) 김종연('20) 김주영('16-'20)
문진영('19-'20) 박종완('19-'20) 신대근('22 80세 완납) 유순옥('20)
윤현곤('20-'22 80세 완납) 이기선('20 80세 완납) 이무영('19-'20)
이원형('20) 이창식('20-'22, 80세 완납) 전형찬('20-'21) 정영웅('20)
정진민('20) 조춘희('20) 최노석('20) 최희택('15-'19) 황진욱('19-'20)
황학구('20 80세 완납)

주소 / 전화번호 변경

편제: 강현식 경기 광명시 광명로928번길
김정로 서울 서대문구 수색로100
김형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하늘마을로94
김홍배 경기 용인시 수지구 대지로75
박경삼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5

방영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776-86
서경주 경기 부천시 장말로137
송일준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567
신준우 용인시 기흥구 한보라1로21번길
윤길용 서울 강남구 선릉로748
이대섭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706-12
이명숙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2길77
이무영 충남 청양군 청양읍 청산로35
이영삼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11로275
이영우 경기 부천시 조마루로416
이영일 서울 은평구 갈현로43길
이유호 서울 광진구 영화사로62-1
이오기 경기 파주시 청석로300
정상자 서울 강남구 언주로30길 27
정호식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로로7
주옥연 서울 강남구 논현로71길48
최양묵 서울 강남구 언주로30길27

보도: 김성수 서울 은평구 진관4로17
김형철 서울 서대문구 세검정로1길95
배귀섭 경기 용인시 수지구 이종무로57번길
이병구 경기 이천시 백사면 원적로775번길
이상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중앙공원로20
이해성 경남 양산시 물금읍 물금로75
전용학 천안시 동남구 청수로98
전재철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382
추성춘 서울 서초구 잠원로8길35
최남석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로75-26
홍윤호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11로 312

ANN: 이현우 서울 양천구 신목로70-1

기술: 남상호 인천 강화군 길상면 강화동로74번길
신명수 서울 강서구 등촌로163
이석희 서울 강동구 고덕로360
조복현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로3길35
조영연 경기 화성시 동탄순환대로10길88
조학동 서울 영등포구 가마산로467
주용국 서울 서초구 청계산로7길43
차동진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240
최희태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112길6
한백수 서울 관악구 보라매로62

업무: 조성식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79길32
최우형 경기 용인시 기흥구 마북로154번길16

관리: 고영석 경기 파주시 책향기로441
김경일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수레로60-2
김영수 충남 태안군 남면 신온리
김호석 경기 고양시 덕양구 동송로70
서기석 경기 용인시 수지구 진산로24
송석철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남로16마길9
원신애 경기 파주시 마무리길23
이은준 인천 서구 청라라임로40

대전: 김주영 경기 부천시 소사구 중동로71번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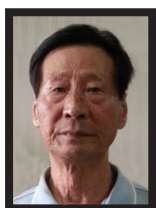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김창동(관리)

5월 23일 별
세. 향년 82
세. 1968년
입사. 총무

국 비상계획부에서 근무.
1995년 정년 퇴직했다



민경창(보도)

6월 13일 폐
암으로 별
세. 향년 77
세. 1970년

입사. 1991년 LA특파원(카
메라)을 지냈다. 1998년 영
상취재부장으로 명예퇴직.



조태영(기술)

6월 15일 별
세. 향년 80
세. 1969년
입사. 카메

라기술부장, 영상제작 부국
장을 거쳐 1994년 명예퇴
직 후 MBC방송문화원 전
임교수를 했다.



홍종명(편제)

6월 19일 별
세. 향년 70
세. K B S
PD, MBC

PD, SBS 프로덕션 제작부
장 등 지상파와 Q채널 제작
국장, 네오비전 대표를 지
냈다.



황의영
(특별회원)

6월 23일 노
환으로 별
세. 향년 98

세. 상공부 광무국에서 근
무하다가 1963년 MBC로
자리를 옮겨 1973년 까지
전무이사를 지냈다.

MBC에 남겨둔 추억들



▶ 첫 근무지 남산송신소

1969년 7월 1일, 문화방송에 서의 첫 근무지는 남산송신소였다. 이전 직장인 국제전신전화국에서도 송신업무를 했고, 무선종사자 자격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남산송신소는 서울, 경기 일원의 시청자를 위해 각 방송사의 송신소가 모두 모여 있는 곳이다. 송신소는 프로그램의 송신 외에 또 하나의 중요 업무가 중계방송이었는데, 중계 현장의 화면을 수신하기 위해서는 약 백 미터 높이의 철탑 위에 설치된 안테나를 중계차의 안테나와 방향을 정확히 맞춰야 한다. 이 작업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건이 발생하면 철탑 위에 올라가서 직접 해야 하니 보통 힘든 작업이 아니었다.

어느 날 안테나에 달린 중계 장치가 고장 났다. 불시에 생기는 중계 방송 스케줄에 대비해 즉시 수리해야 했다. 석남수 씨와 둘이 철탑으로 올라갔다. 경비를 담당하던 홍씨는 밧줄에 묶어 내려주는 장비를 받기 위해 철탑 아래서 밧줄을 잡고 있었다. 석씨와 나는 중계 장치를 떼어낸 후 밧줄에 묶었다. 이제 이것을 철탑 위 평평한 플랫폼에서 밖으로 살그머니 내려놓고, 철탑 밑에서 밧줄을 잡고 있는 사람과 밧줄의 당김을 조절하면서 조심스레 내려야 한다. 그런데, 밑에서 줄을 잘 잡고 있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내가 단단히 잡고 있다

고 생각했는지, 중계 장치가 플랫폼 밖으로 나가자마자 석씨가 밧줄을 놓아 버렸다. 순간, “퍽! 쭈르르~”하는 요란한 도르레 소리와 함께 무게 40kg의 중계 장치가 쏟아져 같이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무의식중에 떨어지는 장치를 잡기 위해 잡은 손에 힘을 주었고 내 상반신이 플랫폼 밖으로 팔려 나가면서 철탑 아래로 떨어지는 듯했다.

‘죽었구나’ 생각한 순간, 갑자기 도르레가 멈췄다. 장치도 허공에 멈췄다. 오른손은 여전히 밧줄을 잡고 있었다.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보니 도르레를 벗어난 밧줄이 도르레 틈에 끼어서 멈춘 것이다. 천우신조가 아닐 수 없었다. 오른손 엄지와 검지 사이를 밧줄이 훑고 지나간 탓에 살갓이 깊이 파이고 피가 철철 흐르고 있었다. 전신에 기운이 빠지고 망연자실한 상황에서 맨 먼저 가족들 얼굴이 떠올랐다. 가족에게 큰 슬픔을 주지 않아서 천만다행이라는 그 생각뿐이었다.

▶ 성탄절에 내린 기적

1971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아침.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출근하기 위해 남산으로 올라가는 도로 옆 통근차 타는 곳에서 차를 기다렸다. 같이 근무할 조장 M씨는 아무리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아 혼자 통근차를 탔다. 송신소에 도착하니 앞 근무자인 조장 김종순 차장과 이정은씨는 기다렸다는 듯 곧장 퇴근했다. 송신소 근무는 혼자 하는 일이 아니다. 갑자기 중계방송이나 정전이 발생할 경우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무리 기다려도 M씨는 오지 않고 내심 불안한 마음으로 시간이 흐르고 있을 때, 10시 쯤 됐을까? 불안은 현실로 나타났다.

“따르릉, 따르릉~”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TV중계부였다. ‘대연각호텔에 화재가 발생해서 생중계를 한다’는 것이다. 곧 이어 오더와이어(무선호출장치)에서 날카로운 소리가 다급하게 터져 나왔다. “MBC송신소, MBC송신소, 여기는 중계차, 여기는 중계차!!” 큰 일도 보통 큰 일이 아닌 듯했다.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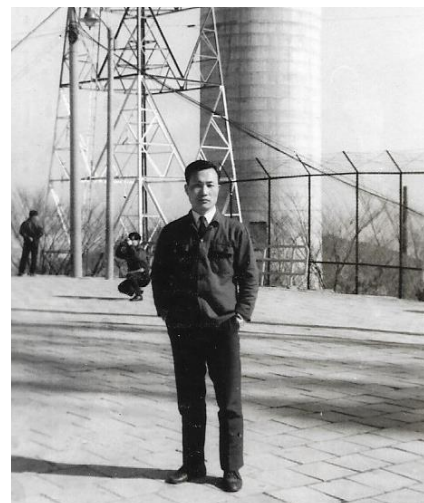
런데 더 큰 일은 이쪽이었다. 중계를 하려면 한 명은 조정실에서 다른 한 명은 철탑 위로 올라가서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중계차의 파라볼라 안테나와 방향을 맞춰야 하는데, 지금은 나 혼자 두 업무를 하게 됐으니 말이다. 급한 마음에 우선 중계 장치의 스위치를 ON으로 돌렸다. 순간, “앗, 이 무슨 기적인가?” 화면이 바로 잡히는 것이 아닌가. 굳이 안테나를 맞추지 않아도 된 것이다. 어리둥절했지만 즉시 수신된 대연각호텔 화재 화면을 연주소로 보냈고, 이 화면은 자막과 함께 송신소로 다시 올라와 전국으로 방송되기 시작했다. MBC TV가 타 방송사보다 먼저 전국으로 방송함으로써 특종을 기록한 것은 덤이라고 할까.

이 화재로 안타깝게도 사망자 163명, 부상자 63명이 나왔지만, 생생한 현장을 중계할 수 있었던 기적을 아는 사람은 지금까지도 많지 않다. 사연은 이렇다. 전날 밤 명동성당에서 성탄절 미사 중계 방송을 했는데 묘하게도 명동성당과 대연각호텔은 남산송신소와의 방향이 거의 같아서 안테나를 다시 맞추지 않아도 화면을 수신할 수 있었던 것이다. M씨는 결국 나타나지 않았고 다음날 새 근무자가 올 때까지 나 혼자 근무를 했다.

▶ 송신소 점령 실전 훈련

1974년 12월. 몹시 추운 날이었다. 저녁 방송은 두 명이 근무하는데 밤 10시 정도가 되면 한 명은 다음날 아침 방송을 위해 먼저 숙직실로 간다. 11시 반쯤 됐을까? 철문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문을 여니 완전 무장한 군인 두 명이 기세등등 들어 닥쳤다. ‘무슨 일이나?’고 했더니 ‘특전사에서 나왔는데 오늘 송신소 점령 실전훈련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나를 총으로 밀치고 기기 조정탁 앞으로 가더니 ‘실전훈련이니 이유 불문하고 방송을 끄라’고 하는 게 아닌가. 전화도 못 걸게 하고 다른 곳으로 가지도 못하게 하면서 재촉한다. 난감했다.

그들은 자기 임무를 수행하겠지만 나도 임무가 있는데 함부로



남산 송신소 시절

방송을 끌 수는 없지 않은가. 시계를 보니 약 30분만 지나면 오늘 방송이 끝날 시간이었다. “침착하자. 방송을 끌 때는 끄더라도 일단은 이들의 말을 들어주는 척 하면서 시간을 벌자” 생각하며 TV화면이 나오는 모니터와 FM 음향을 모니터링하는 스피커 소리를 모두 껐다. 그리고 송신기 쪽으로 들어가는 문도 닫아서 방송이 안 나가는 것처럼 했다. 사망이 조용해졌다. 방송을 끄려면 송신기를 꺼야 하는데 다행히 이 군인들은 방송 시스템을 전혀 모르는 듯했다.

“자, 이제 방송을 다 껐으니 앉아서 몸이나 녹이고 얘기나 하다가 가요” 그러면서 훈련에 고생이 많다고 추켜세웠다. ‘특전사 대원이면 공중에서 남산타워 철탑 위로도 낙하할 수 있나요?’ “그럼요, 할 수 있죠” 내 생각에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들은 의기양양하게 허풍을 떠난다. 힐끔 송신기의 출력미터기 바늘을 보니 TV, FM방송은 팡팡 잘 나가고 있다. 화면도 꺼지고 소리도 들리지 않으니 이들에게는 방송이 끊어진 걸로 보였으리라.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중 20분 정도 지났을 즈음 한 명이 어디론가 연락을 하더니 “됐다, 가자”하며 자리를 뜬다. 콩닥거리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잘 가라’고 인사를 했다.

이 군인들, 제대 후에 ‘자기가 특전사 복무 중에 MBC 방송을 중단시켰었다’고 어디에선가 무용담(?)을 자랑삼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 이 글은 강홍신 회원의 팔순기념자서전에서 발췌했습니다.



김승월칼럼

맞장구



김승월
(편제 · 이사)

“요즘에는 부모님에게 무엇을 해 드려야 효자인줄 아세요?”

한 신부님이 사석에서 신자들에게 문제를 냈다. ‘아재 개그’인가 싶어 ‘돈 잘 드려야 효자’라고 하겠지 짐작했다. 웬걸. 답은 뜻밖에 “맞장구 쳐주는 사람이 효자래요”다.

조금 과장이긴 하지만 요즘 부모님들은 자식들로부터 맞장구조차 받지 못하는 신세라는 말이다. 그 흔하고 쉬운 맞장구조차 받지 못한다면, 머지않아 ‘얼굴만 보여줘도 효자’라는 말도 나오겠다.

부모님 말씀에 자식들이 맞장구치지 않는 것처럼, 하느님 말씀에 ‘아멘’ 하는 것도 줄어든 듯하다. 신부님 강론 중에 ‘아멘’ 소리 듣는 것도 요즘에는 흔하지 않으니까. 누군가 하느님 말씀에 ‘아멘’하고 큰 소리로 응송하면 ‘열심한 신자’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어쩌다 맞장구가 이리 인색해졌을까.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맞장구에 민감해지기도 한다. 강의실을 둘러봐도 고개를 끄덕이는 학생이나 눈빛 반응하는 학생이 안 보이면 덜컥 긴장된다. 외로운 섬이 된다.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 학생들이 마음을 닫고 있네. 아니면 내가 무슨 실수라도 한 걸까?” 반면 학생들 맞장구가 힘이 되기도 한다. 나로서도 쉽지 않은 설명을 하는데 한두 학생이 고개를 끄덕여주면 자신감이 생기기도 한다. “아, 알아듣는 학생이 있긴 있구나.”

맞장구는 반응이다. 감사하거나, 호응하거나, 격려를 나타내기도 하다. 반응은 커뮤니케이션을 활발하게 해준다. ‘커뮤니케이

션’(Communication)이라는 말은 ‘공유하다’, 또는 ‘함께 나누다’는 뜻의 라틴어 ‘Comunicare’에서 생겨났다. 나눔이란 서로가 서로에게 반응하는 것이다. 격려하는 맞장구는 상대에 대한 응원이나 성원의 메시지가 되기도 한다.

라디오 PD로 연출할 때 방송 진행자로부터 자주 들은 말이 있다. PD가 스튜디오 창 밖에서 잔뜩 인상 쓰고 있으면, 진행자는 ‘내가 뭐 잘못하고 있나’ 싶어 말이 딱딱해진다. “진행자가 하는 웃기는 말에 PD가 손뼉 치면서 웃어대면요, 진행자는 작두 타게 되요.” MBC라디오 ‘강 석 · 김혜영의 싱글빙글쇼’를 36년 진행했던 강 석씨가 해준 말이다.

‘작두 탄다’는 말은 흥이 올라 신들린 연기 한다는 뜻이다. 김혜영씨도 비슷하게 말했다. “아이디어 내라고 해놓고 PD가 팔짱 딱 끼고 인상 쓰고 있으면 아무 생각도 안 나와요. 머리 속이 하얘져요, 하지만 별스럽지 않은 이야기인데도 온 몸 흔들면서 재밌어 해주면 신이 나죠. 아이디어도 막 쏟아져요.”

일반 방송 출연자도 비슷하게 말한다. 한국심리학회 회장을 지낸 이규미 교수가 오래 전에 들려준 말이다. “방송에 출연하면, 누가 진행하느냐에 따라, 제 말씀씨가 달라져요. 맞장구 잘 쳐주는 진행자 앞에서는 저도 모르게 말이 잘 나와요. 이문세 씨 진행하는 ‘별이 빛나는 밤에’에 출연했었는데요. 이문세 씨가 제 눈 쳐다보면서, 제 이야기에 집중해주었어요. 계속 맞장구치면서 재밌어 해주니까 방송이 절로 잘 되더라고요.”

전문 방송인이 아니라면 누구나 마이크 앞에서 긴장하기 마련이다. 그럴 때 진행자가 적절하게 맞장구 쳐주면 말이 술술 풀리게 된다.

일상 대화에서도 마찬가지다. ‘아’, ‘예’처럼 맞장구 쳐줘야 대화가 잘 이루어진다. 듣는 사람이 잘 들어 주니까 말하는 사람도 잘 말하게 된다. 일본은 맞장구 문화가 발달했다. 몸짓으로도 그렇고, 언어표현에서도, ‘아, 그렇습니까?’(あ,そうですか) 같은 맞장구를 지나칠 정도로 쓴다. 맞장구 잘 쳐서 더 예뻐 보이

거나 호감이 가는 여성을 ‘맞장구 미인’(あいづち美人)이라고 부른다. 그런 문화 때문일까. 일본 사람들의 대화 모습은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들과 비교하면 달리 보인다. 부드럽고 다정하다.

맞장구를 전문적으로 치는 사람 중 하나는 판소리에서 북을 잡는 고수다. 명창이 한가락 하면 고수는 북을 쳐서 장단을 맞추며 ‘얼씨구’, ‘좋~지’와 같이 추임새 넣어 분위기를 북돋아준다. 슬픈 대목에서는 추임새도 슬픈 소리로 하고, 즐거운 대목에서는 흥겨운 어조로 한다.

추임새가 어느 부분에 강세를 주고, 어떤 어조로 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다. 고수가 추임새를 청중과 함께 하면 분위기는 더욱 고조된다. 명창이 노래 잘하려면 고수가 좋아야 한다 해서 ‘일고수 이명창-鼓手二名唱’, “판소리 공연에서 제일은 고수고 다음은 명창이다”라는 말까지 생겼다.

라디오 프로그램 만들 때 분위기 돋우려고 인위적으로 맞장구 쳐주기도 한다. 코미디 콩트 연기 할 때, 웃기는 장면에 맞추어 웃음소리나 박수소리를 들려준다. TV 오락프로그램에서도 흔히 쓰는 기법이다. 남과 같이 웃으면 더 즐겁고, 웃음의 강도도 세 진다. 남 따라서 웃다 보면 재미있는 쪽으로 생각하게 되기도 한다. 그러나 맞장구가 효과 있다고 마냥 쳐서는 안 된다. 우습지 않은 장면에 웃음소리가 들어가면 억지스럽다. 그런 게 반복되다 보면, 맞장구 웃음소리가 짜증스러

워진다.

요즘에는. 인터넷에서도 맞장구치는 게 흔하다. 신문 기사나 인터넷에 오른 콘텐츠에 댓글 달거나, 좋고 나쁨을 표시한다. 페이스북에서도 좋은 내용이 나오면 ‘좋아요’를 누른다. 처음에는 나도 내용 살피고 눌렀지만 요즘에는 무심해 졌다. 평소 좋아하는 사람이나, 내게 ‘좋아요’ 했던 사람이면 이름만 보고도 그냥 눌러버리기도 한다.

별 생각 없이 눌러준 ‘좋아요’ 맞장구라도 받으면 받을수록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 ‘좋아요’ 제법 받은 내 글 보면서 ‘뭔가 좋은 점이 있었나 보다’하고 좋은 쪽으로 혼자서 생각한 적도 있다. 분명 별 생각 없이 누른 ‘좋아요’가 적지 않음을 잘 알면서도.

맞장구에는 너그러움이 들어 있다. 미국의 어느 심리학교수가 ‘맞장구 인기 조사’를 했다. 맞장구를 많이 받은 분들은 거의 인도, 파키스탄 같이 미국 본토 출신이 아닌 분들이었다. 그분들이 영어를 잘 못 하니까 열심히 들어주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흥미 있다. 아무래도 발음도 이상하고 영어도 이상하다 보니 말을 적게 하고 말하는 사람의 말을 적극 들었을 게다.

다들 바쁘게 살아가는 요즘 세상이다. 힘들고 지친 사람 좀 많은가. 일일이 마음 나누기도 쉽지 않은데, 서로 서로 맞장구라도 자주 쳐주면 어떨까. 그게 부담스러우면 눈빛 맞장구만이라도 좋겠다. 마음이 전해질게다. 맞장구는 사랑이니깐.



강석 · 김혜영의 「싱글빙글쇼」

사무처 리포트

‘불교계의 큰 스승’이셨던 형님



이석일
(사무처장)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분들의 일상이 정지되거나 가라앉은 요즘이지만, **김영일**(보도)회원의 상반기는 황망, 분주, 애통이 뒤섞인 정신없는 시간들이었다고 합니다. 작년 3월 세수世壽 82세, 법랍法臘 48세로 입적하신 가형家兄이자 조계종 해인총림海印叢林 수좌首座이신 원융圓融 대선사大禪師의 부



원융대선사 부도 앞에서

도비 제막식을 6월 2일에 했었기 때문입니다.

故원융 대선사의 본명은 김영빈 金榮彬. 1938년생으로 성균관대학교 영문과를 졸업하고 조달청에 근무하던 35세 때 당대 선지식이었던 청담스님으로부터 ‘신심명’ 강의를 듣고 출가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1972년 합천 해인사에서 성철스님을 은사로 모시고 사미계를 받은 이후 48년간 해인사를 떠나지 않고 성철스님에 대한 지극한 효심으로 평생 선방 시자를 하면서 스승의 법문집 필사와 번역을 도와드렸고, 선원禪院의 교선사敎禪師로서 후학들의 안목을 열어주는 일에 매진한 선승禪僧 중의 선지식입니다.

원융스님은 1974년부터 해인사 퇴설당 선원에서 본격적인 참선을 하셨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12년 동안 장좌불와長坐不臥(절대

눕지 않고 앉은 채 하는 수행)를 계속하며 용맹정진하니까 스승이신 성철스님께서도 ‘이제 그만 하라’고 간곡하게 만류하셨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깨달음으로써 극칙極則을 삼는다”는 이오위칙以悟爲則을 평생 좌우명으로 삼았으며, 입적하시기 전 마지막 당부 말씀도 ‘이오위칙을 명심하여 절대 화두를 놓지 말라’였습니다.

사찰의 업무를 꾸려가면서 사무행정을 주로 하는 사판事判이 아닌, 참선하고 경전을 연구하며 강론하고 수행하면서 불법을 널리 가르치는 이판理判의 삶을 평생 사셨던 스님은 해인총림 선원장과 유나維那(스님들의 수행을 지도, 독려하는 직책), 수좌首座(수행에 모범이 되는 스님) 등 중요 직책을 맡아 불교 발전과 후학들의 지도에 크게 공헌했습니다. 틈틈이 서울 정안사正眼寺 묘심선원, 부산 범어사 등에서 강석을 펼쳐 사부대중四部大衆(비

구, 비구니, 거사, 보살)들에게 화두참선에 대하여 큰 깨우침을 주신 분으로도 유명합니다.



원융대선사

한 핏줄로 맺어진 형님과 만48년 간 생이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김영일** 회원으로서 “아버지 같은 형님이었지만, 언제나 참선에만 몰두하시는 큰 스님이시라 평소 범접하기도 어려웠었는데 이제 영영 다시 뵈 수가 없게 됐으니 황망하고 혼란스럽다. 지나고 보니 사별보다 생이별이 더 견디기 어려웠다”고 심정을 토로합니다.

원융 대선사님, 속환사바速還娑婆(빨리 사바세계에 돌아오다)하셔서 중생을 구제하소서.



원융스님과 성철스님



다비식



영결식

전자랜드 단독
특별기획

에어컨



여러분들께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삼성 무풍에어컨

LG WHISEN ThinQ

Carrier

WINIA

천장형에어컨

천장형에어컨

천장형에어컨

천장형에어컨

힘내라 대한민국! 전자랜드가 응원합니다.

전자랜드 대표번호 080-870-8000

전자랜드 대표 옥치국